

2021년 8월 27일

지사메시지

- 오카야마현 지사 이바라기 류타입니다.
- 정부는 오카야마현을 긴급사태조치구역으로 결정했습니다. 기간은 8월 27일부터 9월 12일까지입니다.
- 이에 현내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사태조치를 취하게 됩니다.
- 현민 여러분에게는 계속해서 낮을 포함한 불요불급의 외출을 자제, 출근자 수를 70% 삭감하기 위한 대응을 요청합니다.
- 또, 현내 모든 지역에서 주류나 노래방 설비를 제공하는 음식점 등에 대해서 휴업을 요청합니다. 또한 대규모 집객 시설은 오후 8시까지로의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합니다.
- 현민 여러분, 사업자 여러분에게는 계속해서 많은 부담을 끼쳐드리게 됩니다만, 현재 폭발적인 감염확산을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내어,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부디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.